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유니세프)

아동영향평가 내실화… 참여정책 발굴·반영도

4년간 지위 유지… 수요자 중심 34개사업 확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아동 참여 확대와 아동 보호 강화,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아동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인증 기간은 지난 25일부터 2030년 6월24일까지다.

구는 2021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아동권리 교육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에 아동권리 인식을 확산해 왔다. 아동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아동영향평가를 내실화하는 한편, 내부 정책추진단을 강화해 아동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 가능성을 검토·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통학로 개선, 찾아가는 안전교육,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급식관리 지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이번 상위단계 인증을 준비하며 구민 의견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6~2029년)'도 수립했다. 아동과 보호자로부터 수렴한 635건의 의견을 분석해 34개 중점사업을 확정했으며, ▲놀이가 즐거운 놀이도시 ▲안전이 우선인 안전도시 ▲건강한 발달 기회도시 ▲참여와 존중의 소통도시를 4대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영유아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 아동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아동친화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강동구,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5→10곳'

7개 기관서 보육교사 1인당 영아수 3→2명 축소

학부모 자부담 시간당 2000원… 月 최대 60시간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짧은 외출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을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역내 시간제 보육 운영 기관은 ▲강동구청직장어린이집(성내동) ▲구립래미안힐스테이트어린이집(고덕동) ▲구립고덕숲어린이집(상일동) ▲구립래미안솔베뉴어린이집(명일동) ▲구립또바기어린이집(상일동) ▲구립강동한별어린이집(길동) ▲구립해나어린이집(암사동) ▲구립별마루어린이집(성내동) ▲구립둔촌1동어린이집(둔촌동) ▲구립코알라어린이집(강일동)이다.

특히 구는 돌봄의 질도 높였다. 올해부터 7개 기관에서 보육교사 1명이 맡는 영아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운영하고 있다. 구는 보육교사의 부담을 줄여 영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세심한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은 만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이용할 수 있다.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는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부모는 2000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3000원을 지원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수험생 맞춤 입시전략 특강 경기 용인시가 지난 27일 시청 예이스홀에서 '대입솔루션 수험생 맞춤 입시전략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학 준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사진은 특강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오는 8월4~6일 '청소년 미래과학 캠프'

마포구, 우주·AI·로봇·반도체등 첨단기술 체험

멘토링·팀 프로젝트도… 1일부터 총 35명 모집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마포 미래과학 캠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우주과학 등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캠프는 오는 8월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미래과학 체험과 멘토링, 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첫째 날에는 서울퓨처랩에서 드론, 로봇, 미래 패션, AI 웹툰 등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미래도시 블록 만들기와 밸런스 게임으로 구성된 '마포 미래도시 MISSION'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과 창의력을 기른다.

둘째 날에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우주·AI·로봇·반도체 등 미래기술을 살펴보고 다양한 미래 직업을 탐색한다.

이어 서울시스마트시티센터에서는 스마트 교통과 재난안전, 기상 환경 관리, AI 행정서비스, 혁신기업 기술 등을 둘러보며 AI가 도시와 행정에 활용되는 사례를 직접 체험한다.

마지막 날에는 미래과학 멘토단과 함께 박람회형 AI 체험부스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래도시 설계 활동에 참여하며 미래의 도시와 자신의 진로를 구상하는 시간을 보낸다. 참가 신청은 7월1일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받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모집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 또는 동일 연령대(2014~2016년생) 청소년으로, 총 35명을 선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다자녀 가구, 등록 장애 아동, 맞벌이 가구 등 우선돌봄아동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퇴거위기 청소년 가구에 밀착 법률지원

강서구-법무법인 대륙아주

경매지분 현금정산 이끌어내

긴급 임시주택등 후속지원도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민·관 협력 사업인 '강서한울타리'를 통해 퇴거 위기에 놓인 청소년 가구를 구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구는 2025년 4월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한 청소년 가구가 주택 경매로 퇴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접수했다. 이에 구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무료 법률자문과 소송 대리를 전담하며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 나섰다. 여기에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의 공동사례관리와 화곡본동 주민센터의 감정평가 비용 지원이 더해지면서 올해 1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해당 청소년 가구는 본인 지분에 따른 현금까지 정산받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구는 강서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향후 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디딤돌 주택(긴급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등 후속 지원도 이어나가고 있다.

강서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위기 청소년을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에는 부모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위기 청소년 사례를 발굴,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 약 1억33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2020년 시작한 '강서한울타리'는 위기 청소년 가정을 발굴하고 관계 기관이 협업해 의료, 교육, 주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연계망 구축 사업이다. 지금까지 380여명의 위기 청소년에게 약 2억4500만원에 달하는 지원을 제공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돼왔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매월 첫째 목요일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송파구-위례동 주민자치위

내달 '이웃집 변호사' 본격화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7월부터 위례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사업 '이웃집 변호사'를 운영한다.

'이웃집 변호사'는 임금체불, 금전 분쟁, 교통사고, 부동산 갈등 등 일상 속 법률 문제를 주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으로,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노동·민사·형사 등 생활 법률 분야에 대한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위례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이웃집 변호사'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대면 상담 대상자는 접수된 상담 내용을 검토해 매월 2명 선정한다. 상담은 1인당 30분 이내로 위례동 주민자치위원인 배인철 변호사 등 위례동에 거주하는 변호사들이 맡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췌장질환자 신규 장애등록

홍성군, 내달부터 신청 접수

충남 홍성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 등 신규 장애등록 유형에 대한 신청·접수를 7월부터 시작한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했고 ▲혈액내 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며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노인 친화 '시니어 동행상점' 찾는다

강남구, 10일까지 4곳 모집

할인 제공땐 환경개선 지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노인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편안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시니어 동행상점' 참여 상점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시니어 동행상점은 신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가 커지는 데 맞춰 민간 상업시설을 노인 친화 공간으로 넓히는 사업이다.

지역 소상공인 상점이 노인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노인친화적 상점 내부 조성을 위해 지원한다.

시니어 동행상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총 100곳을 선정하며, 강남구 배정 규모는 4곳이다.

선정된 상점에는 1곳당 환경개선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의 절반 이상은 큰글씨 메뉴판, 고조도 LED 조명,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경사로 등 노인 친화 환경 조성에 사용해야 한다. 연말 우수상점으로 선정되면 환경개선비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노인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인 소상공인 상점이다.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점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사행성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일반 음식점과 병원·약국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가능 업종은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등 5개 분야다. 탁구장, 헬스장, 요가원, 영화관, 전시관, 음악학원, 미술학원, 공방, 북카페, 카페, 제과점, 이미용실, 목욕탕, 안경점, 사진관, 편의점 등이 해당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홀몸노인등에 폭염 대응키트

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

경기 남양주시는 최근 서부희망케어센터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서부권역 돌봄취약가구 220가구를 대상으로 폭염대응 키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 등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서부희망케어센터는 다산1동과 다산2동, 진건읍, 퇴계원읍 등 서부권역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선풍기와 해충 퇴치용품, 쌀, 제철 과일 등으로 구성된 폭염 대응 키트를 전달했다.

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며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썼다.

남양주=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시설안전 최우수등급 획득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최근 '2025년 교육시설 안전 인증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시설안전인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소방설비, 보안체계관리 및 실외환경공간에서 최우수 평점을 받았으며, 건축재료 안전 및 예방관리에서 우수 평점을 받았다.

이번 교육시설안전인증 최우수등급의 인증기간은 10년으로, 2036년 5월까지 유지된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이번 최우수 수상은 우리 학습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얻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해 학습관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성북구, 길음중학교서 '마음건강상담소' 캠페인

서울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길음중학교 학생 900여명을 대상으로 '상담의 문턱 완화'와 청소년 심리·정서 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아동 마음건강상담소'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청소년 심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길음중학교와 협력해 추진됐다. 센터는 상담에 대한 부담과 편견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센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점심시간에는 음료차를 운영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부채와 무료 상담 쿠폰을 배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고민이 있어도 상담소를 찾아갈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학교에서 밝은 분위기로 진행돼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양혜정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이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상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시흥시보건소, 장애인 건강사업 '국립재활원장賞'

경기 시흥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주관한 '2026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돼 지난 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통합성과대회에서 국립재활원장상을 받았다.

시흥시보건소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재활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흥시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기능 유지와 향상, 사회참여 확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방문재활서비스, 장애인 건강증진 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동작구, 매주 화요일 구민·직장인 응급처치교육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구민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와 보건 안전 증진을 위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7명으로 나타났으며, 생존율은 9.2%에 그쳤다. 이에 구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1시 20분 동작구 건강관리청(보건소) 9층 교육실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동작구민과 직장인(10세 이상 개인 및 단체)을 대상으로 회차별 12명씩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법(하임리히법) 등을 교육하며, 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을 발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동작구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기업 등 20인 이상 일반인 단체가 신청할 경우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장을 방문하는 출장 교육도 진행한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군포시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 영양죽 지원

사단법인 성민원이 운영하는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우양재단과 함께 군포시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 영양죽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군포시 취약계층 노인들 가운데 소화 기능이 저하되거나 치아가 약해 일반식사가 어려운 노인,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영양죽을 전달하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와 식생활을 함께 살피며 올바른 섭취 방법도 안내했다. 지원된 영양죽은 간편하게 조리해 섭취할 수 있는 곡물죽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들의 부담을 덜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영양취약 노인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군포=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